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5.4.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 (02-2100-2680)		담 당 자	차 영 호 사무관 (02-2100-2683)	
	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이 기 영 (02-3145-7290)			이 목 희 팀장 (02-3145-7320)	

제 목 : 한국경제 5.5일자 「금융위 “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... 금감원이 독단 결정”」 제하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한국경제는 5.5일자 “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, 금감원이 독단 결정”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금융위 관계자들은 ‘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개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’ 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,”
 - “금융위 관계자는 ‘금감원은 공개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’ 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,”
 - “금감원 관계자는 ‘감리위에 안전을 넘기기 전까지는 금감원 권한’ 이라며 ‘규정상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 및 일정을 금융위와 합의할 필요는 없다’ 고 주장했다” 고 보도

< 보도 참고 내용 >

- ☐ 4.25일 오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결과 조치예정인 사전통지의 시기, 사전통지사실의 공개방법 등을 금융위에 알렸음
- ☐ 참고로, 현행 금융위 규정(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)상 사전 통지 업무가 금감원장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은 금감원이 결정할 수 있음